

## 응시라는 향유

이병희(미술평론가, 갤러리정미소 아트디렉터)

### '주체'를 갈망하기

오늘날의 주체상은 어떤 양상일까. 물론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어떤 문화 현상과 그로부터의 사회적 영향 속에서 다양한 문화 주체의 경험해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드는 의구심들이 있다. 과연 우리는 '다양한', 그리고 자유로운, 삶의 주체인가. 왜 이런 질문들은 끊이질 않는가. 과거의 주체를 해체하고, 반성하며, '우리는 다양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사실상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할지언정) 어느 정도의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해서 서로 긍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주체'를 희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글로벌화된 세계는 오히려 온갖 문제들을 예외없이 직, 간접으로 경험케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손을 쓰기 힘든 지경이다. 게다가 더 이상 세계 어느 곳이라도 낯설고 새로운 곳은 없으며, 관광지 아니면 산업화된 도시뿐이다. 어쩌면 오늘날의 주체들은 '주체되기' 조차를 포기, 혹은 해체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체'이길 희구하는 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오늘날의 다양성이란 것은 단지 판타지이거나 허구일 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체'를 아직도 '정체성'의 이름으로 희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고립된 주체들인지도 모른다. 우리 실제 삶의 경험들은 온갖 우울과 소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주체는 과거 휴머니즘적 틀에서 바라보았던, 신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주체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자신과 이웃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강박 속에서 현실을 희생하는 일종의 기계주체인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주체들은 현재의 인간임을 서서히 포기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삶을 비판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시도라면 말이다. 오늘날의 주체는 '다양성'의 이름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면서도 항상 삶의, 실제의 '주체'를 희구하는, 그리고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미래를 위해 인간임을 희생하고, 네트워크로 삶을 조직하는 일종의 '기계-주체'들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어떤 곤궁 속에 빠져있다. 가령 그 곤궁은 현실의 모순 속에서, 시차적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들이다. 다양한 개성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모두 너무 흡사한 삶을 살고 있는 단일한 무리들로만 기능한다던가,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현실의 인간의 모습은 변화로만 존재한다던가... 적어도 오늘날의 주체들이 어느 하나의 총체적 전망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그것을 그리워하는 주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총체성의 이미지가 과연 모양만 바뀐 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체'에 대한 의구심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어떤 성찰 속에서 현실로부터의 비판적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의 예술은 자본의 거품만들기를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역기능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마치 그것은 쓰레기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쓰레기로부터, 우리 현실의 우울증적 증상들, 기계적 삶의 외양, 시차적 경험들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그 어떤 예외적 유토피아적 설정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그 곤궁들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주체 호명' 놀이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예를 발견해볼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파편화된 개인의 상상적, 공상적 세계들로부터 뭔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공적 내러티브를 써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스펙터클한 사회에서의 파편화된 개인들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작품들은 바로 우리세대의 개인의 판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러티브를 열어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하나의 현대의 예술작품들로부터 뭔가 미래의 내러티브에 대한 알레고리들을 발견할 수는 있지 않을까.

###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부유하는 주체들

하용주의 이번 <준비된 위장> 전시 작품들은 파편화된 주체들의 상을 그려냄으로써 오늘날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평가는 훗날로 미루는 편이 낫겠지만 말이다. 그의 작품들은 개인의 내면의 풍경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풍경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단지 특정 개인의 내면세계에 몰두하는 소재이거나, 신변잡기적 소재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소재들과는 약간 뭔가 다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오히려 무개성의, 보편적 형상을 만들고 있기에 매우 다르다.

하용주의 작품도 물론 최근의 젊은 작가들의 경향인, 개인의 내면 풍경들이나 개별 주체들이 갖는 유동성을 그림의 화두로 삼으면서 다양한 현대 삶속에서의 새로운 주체상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의 화두는 개개인이 '사회'라는 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다. 오히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개개인의 모습보다는, '사회'라는 현실의 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몰두했다고도 볼 있다. 전시작품의 소재들은 작가 자신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특정 주체의 자화상적 표현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 자화상적 소재는 어떤 보편적 외양을 갖는다. 그들은 딱히 작가라기보다는 관객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며, 동시에 현대인 모두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시장 전체는 그들이 벌이는 일종의 생존의 장, 사회라는 상징적 체계를 암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 장면들은 단지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 비판, 혹은 무관심하기 등과 같은 거리두기의 시선이 아니다. 오히려 그 어떤 굴레와도 같은, 심지어 함정과도 같은 사회적 호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쟁투하고 있는 자들로 표현된다. 아니 작품 자체의 배경은 바로 그 쟁투의

장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끊임없이 호명되는 주체들의 필사적이면서도 어눌한 생존게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품 <거대한 위장>은 이와 같은 긴장되고, 어눌하고,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개인을 폭력적으로 호명하는 사회라는 장을 표현한 대표작이다. 그 속에는 그러한 불완전한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별 주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자료집에도 게재된) 작가와의 대화에서도 밝혔지만, 이 작품은 이전의 하용주의 작품들로부터 진화된 측면을 갖는다. 다른 작품들이 반복적으로 소재를 배열함으로써 한 번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이미지적, 디자인적 효과를 갖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이 작품은 비교적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한 번에 그 이미지 효과를 갖는다고보다는 오랜 시간동안 관찰하게 하고, 화면에서의 이야기를 상상케 하는 내러티브적 효과를 갖는다. 즉 <거대한 위장>은 구성면에서나, 소재표현 면에서나 그 안에서 새로운 서사를 겨냥해 볼 수 있는 알레고리적 소재들을 다수 (재)발견해 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거대한 화면은 매우 급격한 원근으로 전면에서부터 후면으로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으며, 그 안의 인물군들은 여러 주체상들을 한꺼번에 재현하고 있다. 단조로운 흑백의 대조군을 이루면서 춤을 추는 인물들, 검은 양복을 입고 화면 곳곳에 널부러져 있는 인물군들, 군대행렬처럼 일렬로 서있는 인물들, 뭔가 움직임을 암시하면서 형태가 불분명한 인물군, 배경과 동화되어 가는 인물, 그리고 가장 관객과 가까운 위치에 뒷모습으로 화면 전체를 응시하고 있는 인물에 이르기까지 한 화면에서 거의 현대의 모든 주체 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호명놀이에 실패한 비-주체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라는 쟁투의 장에 '무늬'로써 동화되어 있는 자이기도 하고, 현실의 주체로서의 외양을 실패와 성공의 측면으로 조명한 것이기도 하다. 즉 이들은 현란한 배경 무늬들로부터 독립되거나, 동화되고 있으면서, 화면 전체로 볼 때에는 일종의 '무늬자체'이기도 하며, '무늬'로 드러나고 있는 듯 하다. 즉 그들은 개인들이면서 동시에 여럿이고, 인물이면서 동시에 배경무늬이며, 부동적이면서 동시에 유동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을 묶어내고 있는 전체 화면의 배경이 되는 색채는 우선 하용주 작가의 특유의 방법으로 구성되는 배채법과 전면 구성법(작가와의 대화를 참조하라)에 의한 먹색들이 전반적으로 화면에 뭔가 안정되지 않고, 심지어 암울하기도 한, 어떤 불안의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경의 형형색색의 위장 무늬들로 인해 전체 화면의 스펙터클성을 부가시키고 있다.

스펙터클의 배경, 유동적인 화면, 급격한 원근감, 그리고 다양한 주체상들의 표현은 한마디로 현대사회의 스펙터클성을 전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회에서 그 어떠한 주체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아니 정체성이란 자체가 유동적이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절대로 어떤 안정감을 부여해주지 않는다. 개인은 어떠한 개성도 없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고립되어있기도 하며, 동시에 집단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작품에서는 얼굴에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을 물개성적으로 보이게 하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머리가 없이 배경 무늬에 동화된 표현도 있지만, 바로 그 무늬도 어쩌면 마스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을 일종의 마스크(무늬)-인간으로 표현한 듯 하다. 그래서 그들 전체는 단지 어

면 특정 주체로 상징되기보다는 계속해서 특정 기호나, 상징적 의미로 정박되지 않은 채 계속 부유하고 미끌어지는 기표들로서만 표현된다. 단지 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부여받지 못한 채 부유하는 '현대 주체'의 기계적 모습들인 것이다. 이 전체 광경의 중앙 부분에는 한지 바탕색을 그대로 노출시킨 확실치 않은 어떤 움직이는 사람의 형상이 있다. 무늬로써 드러나는 인간들, 무늬-인간형상과 마스크-인간 형상은 현대의 맥락에서 주체로 호명되는 맥락 자체를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일종의 비-주체들일 수도 있다. 즉 화면 전체로부터 우리는 (비)주체로서의 현대 주체가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기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 도처의 응시

흥미로운 도상중의 하나는, 이 작품에서 가장 확실하게 강조시켜서 표현된, 뒷모습이다. 그 뒷모습은 이 모든 광경을 정면으로 지켜보고 있는 자이다. 그 '뒷모습의 존재'는 정면으로 장면을 응시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그의 눈은 전시장 전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그의 정면상인 작품 <날것의 욕망>에서조차도 그는 일종의 '가면 주체'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마스크와 얼굴을 구분 할 수 없는 '마스크-얼굴'의 존재인 것이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단지 마스크와 검정 양복 재킷으로만 구성된 일종의 어떤 허상이다. 게다가 관객인 우리는 그 허상의 뒤통수를 통해서 그 화면 속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눈이 없는 허상의 존재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 따라다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느 곳에 멈추게 하며 동시에 어느 곳으로부터 떠나게도 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면서 동시에 현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의 시선 앞에 놓인 어떤 차폐막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시종일관 감시하고 있는 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론 작가란 존재를 암시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스크 자체일 수도 있다. 그것은, 마치 <날것의 욕망>의 '마스크-얼굴'이 그렇듯이 우리 자신의 얼굴이자, 뒷모습만을 보이며 화면 전체, 사회 전체를 직시하고 있는 그 자이다. 그는 도처에 놓여있는 시선이다. 즉 그것은 응시 자체이다. 그 응시으로써의 가면 주체는 우리 자신의 눈의 역할, 사고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대체한다.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바로 그 '마스크'이다. 그럼으로써 전시장 전체에 마스크-인간, 혹은 무늬들은 바로 이와같은 마스크 전체이기도 하다. 그들은 서로 마스크로써 직시하고 있다. 그것이 하용주가 이야기하는 소통이라면, 바로 그 소통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하는 불안에 바탕한 것일 것이다. 즉 어떤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장이, 바로 우리가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장이라는 것이다.

즉 온갖 주체들의 사회적 쟁투의 장은 차폐막들 사이에서의, 그것을 투과하거나, 그것에 반영되는 시선들이 끊임없이 교환되는 장이다. 그 속에서의 '응시'는 도처에 놓여있다. 응시란 계기는 우리의 시선이 잠시 멈추는 그 순간이다. 그런데, 현대의 그러한 '응시'의 순간은 정

상적인 상에 대비되는 예외적인 왜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일종의 '현대 주체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너무도 분명하게 위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하용주 그림에서의 뒷모습의 존재라던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온갖 인간 형상들, 그리고 사회라는 위장 무늬의 장처럼 말이다. 그것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모두가 잠재적으로 예외없이 왜상으로서 기능한다. 즉 모든 시선의 교환에는 그 교환의 대칭성을 교란시키는 과잉으로서의 응시가 범람한다. 과연 우리가 그 응시의 순간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응시란 순간은 어떤 낯선 성찰적 계기이다. 그것은 현실의 승화의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성찰의 계기란 것은 타자로부터 기인한다기보다는 주체-타자 속에 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계기란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위장' 무늬들을 무엇을 감추면서 동시에 '드러남'으로써 이해하고 있듯이 말이다. 오늘날의 기계적, 보철적, 위장적, 마스크-얼굴 주체는 이렇듯 누구도 예외없이 비-주체, 기계-주체, 타자-주체 등등으로서 끊임없이 주체임이 해체되는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시대의 성찰은, 누군가 절대자로부터, 누군가 새로운 예외자로부터의 비판, 부연, 저항, 반대등과 같이 거리감을 두는 타자적 접근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오늘날 미래를 예감하는 어떤 성찰의 계기는 응시의 순간처럼 불현듯 '드러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 새로운 내러티브를 직조해가는 총동의 순간들

오늘날의 작가들은 어떤 주체상을 그려내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내러티브를 직조해갈 수 있을까. 지금껏 우리가 이야기한 '응시'란 계기를, 오늘날의 파편화된 개별 주체들로부터의 어떤 불현듯 '드러남'의 순간이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그 순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향유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 현대 작가들의 갖는 가교역할일 것이다. 즉 우리의 향유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겨냥하되, 그것을 규정함으로써가 아니라, 열린 가능성을 더욱더 열어재김으로써일 것이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의 내러티브는 개별적 파편화된 공상과 상상과 내면의 이야기로부터 도출되지만, 그것은 분명 어떤 공적 내러티브를 향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부를 수 있는 지난 IMF 이후, 그리고 신자유주의로의 본격적인 진입 시기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화, 문학, 미술 등에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판타지, 엽기 물 속에서 개인적 상상의 세계, 판타지의 세계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주로 젊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서는 공상의 세계, 개인의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작가들이 대거 등장했던 시기였다. 새로운 사조로서 받아들여진 포스트모더니즘의 적응기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젊은 예술들은 판타지물으로써, 현실의 경계와 폭을 매우 넓혀 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한 권에서는 일종의 리얼리즘적 표현 기법으로 비판성을 강조하는 작품 군을 또한 새롭게 보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적 표현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개인적 판타지의 세계에 기반

한, 공상적 세계를 현실인 냥 표현하는 또 다른 상상적 세계인데, 너무도 강렬하고 확고한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그 속에는 어떤 불특정 내러티브적 요소들 또한 존재한다. 이는 내가 보기에는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욕망하는 것의 증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는 이 작은 변화들을 나는 일종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후 현상으로 주목해 보고 싶다. 일종의 그것을 사적 판타지의 세계에서 내적 성찰의 계기들을 통한 새로운 공적 내러티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의 증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의 향유의 순간들을 중요하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증상들은 물론 주로 개인적 정서에 바탕한 독특하면서도, 판타지적인 내러티브를 갖고는 있되, 현실을 나름대로 비평적 시선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고, 미래에 쓰여질 새로운 내러티브에 대해서 열려 있는 태도를 견지한 것일 것이다. 그 증상들을 승화시키는 것은 바로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응시라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또 한명의 젊은 작가 하용주의 이번 전시 작품들은 출품 작품은 미래의 관점에서 어떤 내러티브를 구성할 알레고리로써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은 분명 새로운 내러티브를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에 대한 충동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 충동의 자리는 '사회'라는 장에서 '현대 주체'들의 욕망들이 어떤 증상으로 드러나는 자리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온갖 불안의 요소들, 점철된 불안과 우울의 증상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과 그 속에 내포된 미래에 대한 희망은, 바로 이같은 충동의 자리에서, 그리고 '응시'라는 '성찰'의 계기로부터 일상에서의 승화를 경험함으로써 어떤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개인의 내면과 사적 판타지로부터 서서히 드러나는 어떤 공적 내러티브로의 전망을 갖게 되는 계기이다.